

# 후백제 역사문화권 국가적 위상 제고 협력 강화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유적 국가유산 지정·정부 재정지원 촉구

전주시를 비롯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공유하는 국내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후백제 주요 유적의 국가유산 지정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회원기관 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공동 추진 과제를 확정하는 등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2025년 사업 결산 및 성과 보고 △후백제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보존·정비의 국가 주도 전라사업 격상 촉구 공동성명문십의·의결 △2026년 공동 사업으로 국회 학술대회 심의·의결 △학술·교류 사업 계획 확정 등이다.

특히, 협의회 회원도시들은 이번 총회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주요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과 국가 주도 제도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를 재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회원기관 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현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마한·백제·가야·신라·고구려·탐라·중원·후백제 등 9개 문화권을 지정하고 있으나, 후백제는 이들 문화권 중 국가유산으로의 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도 타 역사문화권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후삼국 시대 후백제가 한반도 역사·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예술적 위상에 비해 국가

적 관심과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유산 일괄 지정과 국가 예산 지원을 위한 국가 주도 전라사업 격상을 공동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회원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과 후백제 역사규명 학술대회 등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향후

협의회 차원의 후백제역사문화권 발전포럼 개최와 학술 연구, 발굴지원 사업,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한 지역 및 광역간 통합 브랜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계를 넘어 후백제 역사를 하나의 광역 문화자원으로 연계하는 사업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회원도시들은 각 지자체별 특화 자원을 묶어 광역 관광·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총회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항저우(杭州)·닝보(寧波)·후저우(湖州)·쑤저우(蘇州) 등 오월 문화 주요 거점을 방문하여 양국 역사 교류의 흔적을 살피고, 이를 학술·외교적 자산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더 이상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며, 회원도시들은 관련 법 개정과 국가 지정이 이루어질수록 앞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협의회 결속이 한층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국가의 제도적 안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일 전주서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5일까지 전주시역 9개 초등학교의 20개 학급(423명)이 참여하는 '드론축구 초등학생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 드론축구 연계 꿈나무 키운다

### 전주시, 초등학생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저변 확대에 나섰다.

시는 2일 전주서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5일까지 전주시역 9개 초등학교의 20개 학급(423명)이 참여하는 '드론축구 초등학생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 인프라와 전문 기관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시와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전문 강사 및 커리큘럼을 맡았다. 또, 전주교육통합지원

센터는 대상 학교 모집과 차량 운행 지원에 나섰다.

교육 과정은 총 120분간 진행되며,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30분간 진행되는 이론 과정을 통해 드론의 구조와 비행 원리, 드론축구의 규정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어 90분간의 체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드론볼'을 조종하며 호버링(정지 비행) 연습과 장애물 통과 비행 게임 등을 즐기며 드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단순한 드론축구 체험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외국인 관광객 위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

### 전주시, 모범음식점 132곳에 영어·일본어·중국어 4개 국어로 제공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전주의 우수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역 모범음식점 130여 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할 때 겪는 가장 큰 불편인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누

구나 전주의 식당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평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우수한 서비스로 시의 인증을 받은 '모범음식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을 널리 알리고, 참여 영업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과 3월 전주시역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총 13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오는 7월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메뉴 자료 수집과 외국어 번역, 디자인 시안 확정 등 맞춤형 메뉴판을 제작해 각 업소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주 고유의 향토음식이 나 업소별 특색 있는 메뉴가 낯선 외국인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메뉴들의 맛과 재료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업소별 맞춤형으로 메뉴판을 제작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국어 메뉴판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메뉴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해당 언어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범음식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탁상용 아크릴 스탠드와 출입문 안내 스티커도 함께 배부한다.

아울러 시는 이후에도 1년간 메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정해 주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한옥마을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 전주시에너지센터·에너지공단 합동... 생활 속 절약 실천 홍보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자원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와 전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옥마을 경계전 인근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정실내온도 준수(난방 20℃, 냉방 26℃) △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하기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특히 시는 한옥마을 내 상가들을 방문해 냉·난방기와 조명기구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독려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히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전주시,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

전주시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5곳이었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부터는 6곳으로 확대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혜림방과후

심리센터 △유한회사 우리에듀 △좋은이웃사회적협동조합 △전라북도특수심리&운동발달센터 △(사)희망찬코리아 희망찬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센터 △(사)담장너머 올리브방과후활동센터 등 총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지역 내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낮 시간 동안 취미·여가와 사회적응 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 것이 핵심으로, 연중 주주식 동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